



# 수도권 육아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육아 편의시설 요인 연구

: OLS 및 머신러닝 기반의 통계모형 비교

보육시설은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육아의 본질적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어린이의 근골격형성과 가구소득에 따른 문화자본의 격차 해소라는 보육이나 육아 소요를 충족시키는데 여전히 불충분하며, 특히 이른바 육아 편의시설의 이용에 만족하지 않은 주민들이 적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신시가지중심으로 제기되었던 육아를 위한 편의시설에 대한 불만족이 심각한 애로사항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신시가지, 경기도 이외의 나머지 지역에 대한 육아만족은 연구된 결과가 거의 없으므로, 신시가지보다 육아 불만족이 심각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육아와 연계된 편의시설 연구가 없다시피 한 상황에서 육아 및 육아 편의시설에 대한 통계모형을 추정하고 요인들을 도출하였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보육, 육아연계된 편의시설 및 만족관련 요인에 관한 문헌 연구, Quasi-experiment 실험방법의 원용, 서울-인천-경기 수도권에 대한 인구비례 표본설정 및 모바일설문조사, 조사 및 수집된 데이터의 사전처리, 육아연계 편의시설에 대한 만족관련 통계모형의 추정과 결정인자 분석, 출산 이후의 관련 육아편의시설 등 근린환경의 구성에 대한 시사점의 제시이다.

본 연구에서 첫째, 육아만족이 아파트, 빌라 및 다세대, 단독 등의 주택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둘째, 육아만족에 대한 요인은 비공간적 요인 뿐만 아니라 실외활동관련한 공간적 요인이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였으며, 셋

째, 육아만족은 보육 또는 육아와 연계된 도서관, 문화시설, 공원, 체육시설, 병원 등의 편의시설의 근접성에 영향을 받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분석한 육아만족에 대한 요인은 공간적 및 비공간요인으로 구분되었다. 비공간적 요인은 교직원수준, 학습방법 및 놀이지원, 실내공간, 건강청결, 급식, 실외공간 확충, 등하원안전 등이며, 공간적 요인은 문화시설, 어린이공원-놀이터, 어린이의 신변 안전시설, 주차장 및 비상벨, 실외학습 기회, 도서관 등의 공간적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육아편의시설과의 근접 여부이다. 부연하면 문화시설과 근린공원이 원거리에 위치할 경우 불만족이 증가하는 패턴이 나타났으며,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에 실외학습의 기회가 적거나 근린공원까지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불편한 경우로 해석되었다. 어린이공원이나 놀이터까지 도달시간이 길어도 이동할 의향이 있지만, 근린공원까지 도달시간이 20분 정도를 초과할 경우 이동할 의향이 감소한다.

어린이의 실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육아만족이 증진된다는 분석의 결과를 확인하였다. 육아연계한 편의시설은 실외활동을 촉진하는 효과를 보이며, COVID19 발생으로 가중되는 육아부담이 육아편의시설에 근접할수록 낮아지는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몇몇 육아편의시설이 주거지와 근접할수록 실외학습횟수가 증가하며, 보육시설과 역시 근접할수록 실외학습횟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론되었다.

본 연구에서 보육실태 조사에서 간과되었던 육아 편의시설이 어린이 실외활동에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으며, 육아편의시설과의 근접성은 어린이의 근골격을 강화시킬 수 있는 신체활동이 증가하고, 창발성의 잠재력의 주춧돌이 될 수 있는 문화 여가 등의 다양한 자원을 축적하는 활동과 연계될 수 있다는 명제는 도시계획 및 설계에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COVID19로 유발된 육아부담이 높다는 응답에 따라 어린이공원, 놀이터, 근린공원 등의 육아편의시설까지의 유클리디언 거리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비상벨 등의 육아연계 교통편의시설과 근접할수록 육아만족은 높아졌다. 뿐만 아니라 육아편의시설과 근접함에 따라 COVID19 이후 실외학습횟수의 증가와 함께 육아만족이 높았다.

COVID19의 상황에서 어린이의 보건안전에 대한 염려가 관심사이지만, 실외활동을 하기에 적절한 장소나 육아편의시설이 불충분하다는 응답이 많기 때문에

어린이공원과 근접할수록 육아만족도가 높아지고, 어린이공원 등의 어린이편의시설과 원접할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특히 COVID19 팬데믹의 상황에서 실외학습의 기회가 좀 더 많을수록 육아만족도가 증가하는 경향 또한 확인되었다.

연구를 통해 주택유형으로 본 육아만족은 육아연계한 편의시설에 대한 양적 불충분의 문제로 심각하다. 아파트 거주자에게 육아 편의시설의 양적 문제와 동시에 질적 문제가 있다. 아파트 이외의 거주자에게 육아 편의시설에 대한 일차적 문제는 육아편의시설의 양이다. 아파트 거주자들은 연합회를 통한 집단적 의사표명이 이루어 지는 것이 보통이므로, 아파트 거주자중심의 육아관련한 편의시설의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육아와 연계한 편의시설의 양적 불충분 문제와 함께 육아편의시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문제에 봉착해 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거주자에게 보육에 대한 불만족이 팽배하고 보육시설의 절대적 부족이 심각하며, 보육시설의 질적 문제 또한 있는 것이 명백해 보인다. 아파트 거주자에게는 어린이인구에 비해 보육시설의 양적인 부족이 일차적인 문제이고, 육아연계한 편의시설이 이용하기 쉬운 거리에 있지 않다는 것 또한 문제이다.

하지만 빌라나 다세대 거주자에게는 아파트 거주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육시설의 양적 부족과 함께, 육아연계한 편의시설의 질적 만족도 또한 낮다는 문제가 있다는 의향을 표명하였다는데 초점을 두고 육아만족의 증진이나 육아편의시설에 대한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책시사점으로 육아정책영향이 아닌 「육아공간영향평가」를 도입함으로써 육아편의시설의 양적 개선과 다양화 등의 질적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도보로 15분에 도달할 수 있거나 또는 육아접근성에 적정한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소규모공원 등의 육아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방향이 권장된다.

